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김진우 “다시 던지고 싶다”

지난 7월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잠적했던 'KIA 토종 에이스' 김진우(24·사진)가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진흥고 감독은 21일 "(김)진우가 야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알았다"면서 "이달안에 광주에 내려와 모교인 진흥고에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시절 김진우를 조련했던 최 감독은 "최근 (김)진우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야구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모교인 진흥고에서 연습을 함께 하자는 뜻을 전했고,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감독은 "현재 서울에 있는 (김)진우가 그동안의 모든 고민을 벗어 던지고 혼자서 몸 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야구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인 만큼 다시 도전한다면 충분히 재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측근 통해 KIA 복귀 의사 밝혀

구단 "성실한 자세라면 대환영"

팀 무단 이탈로 지난 7월 31일 소속 구단인 KIA로부터 임의탈퇴를 당한 김진우는 그동안 서울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을 시즌 중반들어 별다른 이유없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스티브 블래스 증후군'(본보 6월 25일 22면)에 시달려왔던 김진우는 지난 7월초 KIA를 무단 이탈한 뒤 '야구를 그만두겠다'며 팀 합류를 거부했고, 결국 지난 7월 31일자로 임의탈퇴를 당했다.

임의탈퇴는 공식 시점부터 1년간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은퇴를 의미한다.

하지만 KIA는 김진우가 복귀를 희망할 경우 '성실한 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제든지 지 팀에 합류시

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김진우는 정상 컨디션만 되찾는다면 탈퇴 1년이 지난 내년 8월 1일부터 마운드에 설 수 있게 된다.

KIA 관계자는 "간접적으로 김진우의 복귀 소식을 들었으나, 공식적으로 구단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면서 "김진우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실한 자세로 팀에 복귀한다면, 구단으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신인 최고 계약금인 7억원을 받고 KIA에 입단한 김진우는 데뷔 첫해에 12승(11패)을 올리며 탈삼진왕(177개)을 차지했다.

이후 2003년 11승, 2004년 7승, 2005년 6승, 2006년 10승을 거뒀던 김진우는 을 시즌 심각한 제구력 난조로 1군 경기에 5차례 등판해 1승 2패, 평균 자책점 8.35로 부진했다. 프로 통산 성적은 47승(34패), 평균자책점 3.66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선발투수 고민되네

베이징올림픽 야구아시아 예선전이 열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에서 막판 맹혼 중인 대표팀이 확실한 선발 투수를 찾지 못해 고심 중이다.

특히 필승카드로 여겼던 박찬호(33·LA 다저스)가 완벽한 믿음을 주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찬호는 20일 삼바군-대표팀 간 일곱 번째 평가전에서 삼바군 선발 투수로 나와 대표팀 주축 타자들을 대상으로 3이닝 동안 62개를 던져 홈런 2방 등 안타 5개와 볼넷 2개를 허용하고 4점을 쫓았다.

평가전에서 중간 투수로만 등판,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기대감을 높였지만 첫 선발 등판에서 고개를 떨궜다.

박찬호는 오키나와에서는 더 이상 실전에 나가지 않고 24일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한 시뮬레이션 게임 때 투구수를 7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박찬호, 평가전 예상밖 부진

올림픽팀 선발 운용에 고심

12월1일 대만과 예선 1차전에서 결승전이냐 다름 없는 혈전을 치러야 하는 대표팀은 컨디션이 좋은 투수를 뭉땅 쏟아 부을 예정이나 마운드의 축으로 삼았던 박찬호가 흔들리면서 대만전 투수 운용계획이 꼬여가는 분위기다.

26일 결정장 대만으로 넘어가는 대표팀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자체 시뮬레이션 게임으로만 컨디션을 조절할 예정이어서 박찬호가 실전을 치르지는 않고 구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오키나와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직전까지 대만전 선발을 합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판 승부에서 선발은 그리 큰 비중이 없지만 대만을 꺾을 경우 2일 일본전 불펜 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대만전 선발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만 킬러' 정민태(37·현대)를 봐도 알 수 있듯 대만전에는 빠른 볼과 제구력을 겸비한 투수가 효과적이다.

대만에는 우타자가 많아 우투수로 맞서야 하고 현재 대표팀 멤버 중에서는 박찬호와 류제국이 제 격인데 박찬호는 구속과 제구력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고 류제국(24·램파베이)은 구속은 좋지만 볼이 가운데로 몰려 100% 신뢰하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있다.

선발이 확정돼야 치밀한 불펜 운용 전략도 본 궤도에 오른다. 시뮬레이션 투구에서 박찬호가 구속과 컨트롤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 대표팀 투수진의 보직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

■ 진흥고 출신 LA 에인절스 정영일 투수 귀국...모교서 훈련

“철저한 자기관리법 배웠죠”

지난 2월 27일 19세 소년으로 진흥고를 졸업한 정영일(LA에인절스·사진)은 한국인 선수로는 31번째로 메이저 리그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 소년은 "3년내에 메이저리거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당시 미국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는 연고 구단인 KIA 타이거즈에 1차 지명을 받았으나, 끝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돈 때문이다. 야구 브로커에 속았다"는 등 갖은 억측도 퍼들었다.

하지만 정영일은 어린 시절부터 이루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찾아간 것이다.

정영일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때 박찬호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은 뒤부터 메이저리거가 진

까지 훈련하고 있다. 하체 위주로 체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에서 성적은 어땠나.

▲모두 3경기에 선발로 나서 9이닝동안 7피안타, 4실점(비자책 3점)했고, 삼진은 12개를 잡았다. 구단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이후 더 이상 출장하지 못했다.

-부상이 심각했나.

▲6월 중순 선발로 나섰다 팔꿈치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재활훈련 끝에 최근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다.

-고교시절 어깨 혹사(한 경기 242개 투구)논란도 있었다. 그게 부상의 원인이었나.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구단에서도 어깨 피로누적이 원인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우선 철저한 자기 관리법과 체인지업을 배웠다. 또 작구 스피드도 고교시절엔 최고 148km까지 나왔

출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최정상급 야구 선수들이 모인다는 미국땅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신인들이 초년시절 잠시 머물러 가는 루키리그를 전전했고, 지난 6월엔 마이네리그 아래단계인 싱글 A 수준의 유타 오렘 울츠에서 선발로 나서서 기회를 잡았지만, 3경기만에 팔꿈치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정영일은 정밀 진단에서 팔꿈치 인대가 미세하게 찢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수술 대신 이를 약물과 재활훈련에 맡겼다. 다행히 이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정상적인 피칭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11일 조용히 귀국해 모교인 광주 진흥고에서 후배들과 함께 한겨울 찬바람을 뚫고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정영일을 21일 만났다.

-고향에 돌아 온 소감은.

▲가죽을 만나서 반갑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는 빠다귀 해장국을 먹게 돼 너무 좋다.

-살이 많이 빠진 듯 한데 미국생활이 힘들었나.

▲미국 진출전엔 108kg까지 나갔는데 10kg정도 빠졌다. 몸이 무거워 훈련과 다이어트로 됐다. 처음 한달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 먼곳까지 와서 야구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도 했다. 야구를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젠 안정감을 찾았고, 후회도 없다.

-요즘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진흥고 후배들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

“체인지업 연마...2년후 빅리거 목표

美생활 외로움 훈련으로 이겨냈죠”

日 요미우리 오가사와라

2년 연속 '최우수 선수'



일본 프로야구 이승엽(31)의 팀 동료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오가사와라 미치히로(34·사진)가 2년 연속 일본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오가사와라는 20일 후쿠오카 시내 호텔에서 열린 2007년도 일본프로야구 총회에서 열린 프로야구 기자단 투표에서 센트럴리그 MVP에 뽑혔다.

작년 니혼햄 파이터스에 있을 때 홈런과 타점 2관왕에 오르며 팀 우승을 이끌어 퍼시픽리그 MVP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센트럴리그 MVP까지 휩쓸며 2년 연속으로 양대리그 최고 영예를 독차지한 셈이다.

양 리그 MVP를 모두 차지한 것은 1979년 히로시마 도요 카프와 1981년 니혼햄에서 각각 MVP를 탄 거물투수 에나쓰 유타카에 이어 두 번째지만 2년 연속 수상은 오가사와라가 처음이다.

美 필라델피아 롤린스

내셔널리그 '최우수 선수'

미국프로야구 명품 유격수 지미 롤린스(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생애 처음 내셔널리그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롤린스는 미국야구기자협회가 21일 실시한 내셔널리그 MVP 투표에서 1위표 전체 32표 중 16표와 2위 7표 등 총 353표를 획득, 336점을 얻은 맷 할러데이(콜로라도 로키스)와 284점의 프린스 필드(밀워키 브루어스)를 따돌렸다. 지난 2000년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롤린스의 MVP 첫 수상.

롤린스가 할러데이를 총점 17점차로 제친 건 역대 MVP 투표에서 1991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3루수 테리 펜들턴이 배리 본즈(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15점차로 따돌린 이후 최소 점수 차 수상이다.

골프·캠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독펠리 회원권

골프 황 시애틀	골프 황 시애틀
광 주 3,500	광원 900 5,200
남광주 4,300	파인힐스 12,200
승 주 8,200	힐 팅 7,400

상당 이익 (062)351-0095